

# ‘전국 최고’ 무안갯벌낙지 전용포장재 공급

### 갯벌 낙지 명성·브랜드가치 보전·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28개 어촌계 400어가 대상...전국적 택배주문 판매에 도움

무안군은 봄철 무안 갯벌낙지 성어기를 맞아 갯벌 낙지 명성과 브랜드가치를 보전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갯벌낙지 전용포장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낙지를 생산하는 28개 어촌계 400어가에 전용포장재 8만 6천개, 아이스팩 2만 7천개를 공급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낙지생산 적기에 맞춰 어업인들의 전국적인 택배주문 판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양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은 2007년부터 낙지전용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타 지

역 낙지와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갯벌낙지 명성·브랜드 가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 갯벌낙지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청정 갯벌에서 자라 육질이 여리고 감칠맛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작년 기준 약 11만 8천점(1점당 20마리)의 낙지를 어획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국제축구센터,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지 각광 우리나라·말레이시아 육상팀 등

목포국제축구센터가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훈련지로서 최적의 시설을 갖춘 목포국제축구센터에는 지난 1·2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과 심판 임원 강습회 등이 열려 5,700여명이 다녀갔고, 2억여원의 영업수익을 거뒀다.

이달에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육상(투척) 국가대표 선수단 10여명이 방문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지난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말레이시아팀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현재 축구·카누·수영·하키 등 다양한 종목 선수단이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체육 행사 개최가 늘어나고 국가간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맞춤형 전지훈련지로 최적지인 목포국제축구센터 방문이 활기를 되찾음에 따라 시는 전지훈련팀에 차량임차료, 유튜브, 물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전지훈련지로서 인기가 높아 지난 2017, 2018년에는 전라남도 동계 전지훈련 유치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국내·외 선수들의 전지훈련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체육회는 지난 14일 우리나라 및 말레이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한육상연맹 백옥자 부회장(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투포환 금메달)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송진호 목포시체육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스포츠도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단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영암 도예교실 수강생 모집 영암도기박물관 생활도예교실

영암도기박물관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도예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

도예교실은 생활도예교실과 도예동아리가 있으며 이번 생활도예교실은 참여를 희망하는 영암군민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예동아리는 그동안 생활도예교실을 이수한 군민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생활도예교실은 기초적인 도기 빚기와 장식기법을 토대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예동아리는 도기 빚기 심화 과정과 불레기초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12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립도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생활도예교실은 각각 4월, 8월에 모집(선착순 15명)하여 상·하반기 5~7월, 9~11월 운영하고 도예동아리는 4월에 모집(25명)하여 5~11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강좌를 재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영암도기박물관 관계자는 ‘생활도예교실과 도예동아리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기를 빚고 흙을 만지면서 행복한 시간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예교실은 지역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이 갖는 공공의 의미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벼농사 규모화 사업’ 사례 발표회 개최



신안군 ‘벼농사 규모화 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들은 자체 주관으로 지난 14일 사업에 참여한 법인의 구성원들과 앞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벼농사 규모

화 사업’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벼농사 규모화 사업」은 소규모·고령 농가의 영농작업을 20% 절감된 수수료로 연 50ha 이상 벼농사 위탁경작이 가능한 대규모 전업농(영농조합법인)이 대행토록 하여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 조성과 단위 면적당 생산비를 절감 등 10개의 법인이 1,500여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하며 1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지난 1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안좌천사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영진)의 사례는 김영진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4명의 조합원이 초기의 어려웠던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며 서

로에 대한 배려와 남다른 협동심으로 본 사업을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 다른 법인의 모범이 되어 사업에 참여한 법인들의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안좌천사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영진)의 사례발표와 더불어 법인들이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고충과 애로사항, 그리고 사업의 발전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법인의 대표는 “이번 사례 발표회를 계기로 신안군의 당부처럼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소규모·고령 농가의 손과 발이 되는 ‘벼농사 규모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상상을 펼치다”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22일 개장



짜릿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VR 체험장이 ‘나비의 고장’ 함평군에 문을 연다.

함평군은 19일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장이 오는 2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VR체험장은 롤러코스터, 퓨처바이크, 드론, 우주여행, 해저탐험, 패러글라이딩 등 VR(가상현실) 12종과 스크린사격, 스크린축구 등 AR(증강현실) 2종으로 구성 돼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1게임 4,000원, 3게임 10,000원, 5게임 15,000원이며, 각 프로그램은 3분~4분 정도 소요된다.

함평=김광춘기자

###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